

尹, 국회에 계엄군 685명 투입...전두환 12·12보다 6배 많아

현재 심판서 인원·무장 규모·작전 성격 '국헌 문란' 판단 가능 전체 포함엔 軍 1191명·警 1200명...尹 "질서 유지" 발언과 배치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투입한 계엄군 병력이 1980년 전두환씨가 국회 봉쇄에 투입한 병력의 6배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현재) 심판에서 계엄군 투입의 성격을 두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 투입한 계엄군의 숫자와 무장 규모, 작전 성격이 '국헌 문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5일 익명을 요구한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1980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과 이번 계엄에 동원한 인적 구성, 화기 등을 비교하면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질서유지 성격으로 볼 수 없다.

1996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전두환 내란 재판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1980년 전 씨가 국회 봉쇄에 투입한 병력은 98명이다.

계엄군 소속 제33사단 101연대 1대대 3중대 소속 장교 3명, 사병 95명은 엠(M)16 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1980년 5월 18일 새벽 1시 45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소재 국회의사당을 점거, 봉쇄했다. 경장갑차 8대와 전자 4대도 동원됐다. 계엄군은 같은 해 8월 30일까지 국회의원 등 일체의 출입자를 통제했다.

이에 따라 5월 20일 오전 10시 개최예정인 제 104회 임시국회 개회가 불가능하게 됐고 1980년 6월 18일 임시국회가 자동 폐회돼 국회가 사실상 해산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국회에 보낸 계엄군 병력은 1980년의 6배를 넘는 685명이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는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 197명, 1공수특전여단 277명, 수도방위사령부 211명 등 685명이 투입됐다.

국회의원 체포조인 방첩사령부 49명, 정보사령부 15명, 9공수 211명 등을 포함하면 동원된 전체 계엄군 숫자는 1191명까지 늘어난다.

국회 주변에 배치된 경찰력만도 1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장한 계엄군은 당시 헬기를 타고 국회 운동장에 진입했고, K151 소형전술차량 3대와 지휘 차량 등도 배치됐다.

계엄군은 K1A, KS-3, SCAR-L 등 최신 개인 화기(소총)를 들고 야간투시경까지 장착한 상태였다.

군사전문가들은 국회 봉쇄 차원을 넘어 개인별 타격을 위한 계엄군 투입이라고 분석한다.

1980년 당시 전자 배치는 위세용으로 봉쇄 목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번에 출동한 계엄군은 정밀타격용 장비를 장착한 최정예 특수요원이 중심이었다는 점에서도.

한 군사전문가는 "전자투입을 보고 과거 화력이 더 좋다고 판단하면 안된다"면서 "오히려 최신 개인 화기에 최정예 부대를 배치하고 야간투시경까지 장착한 점은 야간에 정밀한 타격을 염두한 작전지시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군 투입은 질서유지 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방부장관에게(국회에) 질서 유지를 위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제 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을 지시했다"면서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

이 아님은 자명하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주장은 전두환씨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씨는 1995년 5·18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서면질의 답변서(A457쪽 분량)에서 "33사단 병력의 국회출동은 5·17전국 비상계엄확대에 따르는 국가주요시설 경계를 위한 계엄군 출동의 일환으로서 계엄사령부가 취한 조치"라고 강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檢,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영장 청구

곽중근 특전사·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국회에 계엄군·군사경찰단 등 투입

검찰이 12·3 비상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곽중근 육군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내란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내란 중요인무 종사 등의 혐의로 박 육참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검서울남원에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모든 정치 활동을 중단하는 등의 위험적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을 전달해 국회 봉쇄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특전사 예하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을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707특수임무단은 특수항공작전단 헬기를 타고 국회 앞 운동장으로 투입됐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령관은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을 국회에 투입했다.

이밖에 곽 사령관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10일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속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앞서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문상호 정보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탄핵 촉구' → '파면 촉구' 집회로 진화

광주 비상행동, 21일부터 매주 토요일...오늘 국민 승리 선포 회견

오월 항쟁의 아픔을 간직한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등에서 열렸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촉구 집회가 파면 촉구 집회로 변모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탄핵안 인용을 촉구하며 매주 집회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15일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혁 광주 비상행동' (이하 광주비상행동)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 전일빌딩 245에서 국민 승리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광주 비상행동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광주비상행동은 오는 21일부터 매주 토요일 시민집회 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비상행동은 사법부가 빠르게 탄핵안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말 집회를 통해 광주 시민의 불안과 분노를 전달 계획이다.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 처벌도 촉구할 방침이다.

전국에서도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가 이어진

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로 합성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당장 15일 오후 탄핵 인용 촉구 집회가 열린 곳은 대전, 울산, 대구, 강원, 경기 안성 등에서 열렸다.

집회에서 문화 공연과 자유 발언 등이 이어졌고, 주변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과 만나는 거리 행진도 진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신속하게 구속 수사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현재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전국 대부분 시민사회단체 등은 전날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때까지 탄핵 촉구의 합성을 이어가기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과 인천 등지에서도 현재의 탄핵 인용 시까지 매주 집회를 여는 등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尹 응원 화환에 '불'

용산 대통령실 인근...경찰 조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에 놓인 윤 대통령 응원 화환에 불이 났다.

15일 서울 용산 소방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세워진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화환에 불이 났다.

이 불로 화환 10여개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용산소방서는 '화환이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10여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은 방화인지 혹은 담배꽂초 투기로 발생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